

월요광장

경제의 안과 밖 그리고 진정한 ‘우리’에 대하여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 갑자기 낯설어질 때가 종종 있다. 그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다. 이 표현은 말을 하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볼 때 친숙함은 ‘낯설음’으로 변한다.

예를 들면 골 깊은 갈등이나 대립을 적당하게 통치고 넘어가려는 계산, 서둘러 불편한 상황을 봉합하려고 할 때 그렇다. 또는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경계를 긋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때 그렇다. 그래서 우리라는 집단의 위협은 곧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당연한 것으로 전

제하고, 다른 입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저쪽 편’으로 내몰면서 경계를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여전히 우리라는 표현의 사용법은 편 가르기를 위한 도구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는 ‘3기나’(Three Guineas)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사실들이 감춰져 있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공유하지 않거나 공유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사이에 두고도, 천연덕스럽게 ‘우리’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울프의 비판은 당시의 여성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지적은 문화와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하다. 왜 우리라는 말로써 오히려 내편과 네편을 나누는 일에 몰두하는가? 남녀 문제가 그렇고, 직장에서 세대 간에도 이웃 간에도, 특히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다. 심각하게 부당한 이해관계지만 나뉘 먹을 것만 있으면 오늘은 내편이고 내일은 저쪽 편이 된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삶은 전쟁

과다를 바없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삶은 상처와 혐오, 냉소로 돌아온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얻은 삶이 어찌 자랑스러울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필연성은 건강한 우리-공동체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패거리를 지어서 힘을 독점하고 배제와 소외를 합리화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고, 무시와 모멸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먹기가 아니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우리-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경계의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경계는 밖에 있는 것을 합부로 규정하고 소외하는 수단이다. 타인이 겪는 상황과 고통에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동정과 연민이 때로는 냉소와 비웃음만큼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편을 가르는 경계를 허무는 힘은 진보하는 미래와 희망의 공유에서 나온다. 희망이란 바로 ‘더 나은 삶에 관한 꿈’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미래가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면 지금을 함께 견딜 이유도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서로에 대한 믿음, 지금의 불안과 고통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미래 도서관 율해의 작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다. 무척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다. 한강 작가는 선정 소감문에서 이렇게 희망을 말했다. “나는 백 년 뒤의 세계를 믿어 아 한다. 거기 아직 내가 쓴 것을 읽을 인간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근거가 불충분한 희망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다. 믿음과 희망은 충분하고 완벽한 조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희망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다. 한 작가의 작품은 2114년에야 출판될 것이다. 한 작가를 통해서 약 100년 뒤에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 그것이 곧 희망이며, 희망은 실천이고 행동임을 본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진정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한다. 더 다양하고, 더 자유롭고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민법 처벌 조항 개정 추진과 여론 조사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트 변호사

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추측하건대 위 여론조사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민법 개정엔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민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즉, 필자 주변의 아동 학대의 근절을 위해 민법 개정엔 찬성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식의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아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 그 대부분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아동의 인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이룰 규정하여 두면서까지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위 여론조사의 찬성과 반대 입장은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상이할 뿐 “최소한의 처벌마

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필자가 알기로는, 정부가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도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손조차 댈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극히 협소하게 인정하여 아동의 인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위 여론조사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결국 “필요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부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견해 하에, 민법 규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 상황에서 굳이 민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정부는 민법 처벌 조항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과 절차

에 따른 ‘처벌’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다. 지난하리라고 예상되는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 그 자체를 통해 처벌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개선이나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아동 학대에 심각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처벌을 허용하는 민법 규정 때문만은 아니며, 민법 개정이 처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선연적인 방법도 불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과 아동 학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예방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실효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민법 개정 추진 보다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일례로 예비 부모 및 새내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아동 학대 예방을 포함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의무 교육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상습 탈당자도 4년만 지나면 괜찮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당 감산 기준을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로 제한하고, 탈당 횟수는 감산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탈당을 밥 먹듯이 하는 이도 4년만 지나면 감점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미 공개했던 공천룰 내용을 일부 보완한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역 당체장의 무분별한 출마에 따른 감점을 높이고 탈당 경력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은 크게 퇴색했다.

우선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점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탈당 경력자(25% 감점)의 경우도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자가 아니면 감산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세 번이나 탈당을 했으며 광주 모 선거구 출마가 예상되는 이 모 씨의 경우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민주당에서 과연 ‘철재 정치인’ 퇴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철재 정치인은 우리의 정치 용어로, 당장의 이익과 권력을 좇아 쉽게 당적을 바꾸는 정치인을 말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소신은 내팽개친 채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이 당 저 당 기웃거린다. 공천에 탈락하면 그간 자신이 몸담았던 당을 향해 거친 독설을 퍼부어 대고 탈당을 선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은 세 불리기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같은 행태를 용인해 왔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개인의 출세와 안위를 중심으로 당적을 바꾸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은 당장 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원 공천룰 찬반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당원 토론 기간에 철재 정치인이 기생할 수 있는 ‘공천룰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신인 가점을 나이에 따라 10-25%까지 적용하는 것처럼 ‘탈당 횟수’도 공천 감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미래 교통망 계획에 지역 현안 반영돼야

정부가 국가 철도망 구축과 광역 교통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의 철도-도로 등 주요 현안이 정부 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 건설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어 20년간 광역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제 2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기본 계획(2021년-2040년) 수립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계획에 지역의 신규 광역 교통 시설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 철도망의 경우 광주시는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를 우선 반영해 줄 것을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요청하고 있고, 전남도는 익산~여수 간 전라선 고속철도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아울러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와 광주~나주 간 광역 철도망도 포함될 수 있게끔 힘을 모으고 있다. 광주 도로는 광주 하남~모성 삼계, 광주 대촌~나주 금천, 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 등도 있다.

광역 철도와 도로는 물류와 문화 교류를 원활하게 해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립된 국가 계획에는 광주-전남에서 건의한 신규 사업은 대거 누락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누락된 광주-전남의 신규 광역 교통 시설을 이번 국가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앞선 군사-무기 체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한다는 ‘정상 개발론’과 외계의 기술을 이용해 경쟁국을 앞서고 있다는 ‘음모론’이 그것이다.

음모론의 핵심은 ‘인류가 정상적인 진화 단계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신 기술을 외계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외계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헐리우드 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소재로 삼은 ‘맨인블랙’ 같은 영화들이 만들어

이야기다. CNN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침대에 누운 대통령은 베이커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베이커가 “천국에 가는 거죠”라고 답하자 부시는 “좋아,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라고 말한다.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정보를 다뤘던 전 미국대통령이 ‘영혼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외계의 앞선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절친’에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굳이 물었을 리는 없을 터다.

정보 격차

확정적인 결론을 이끌 낼 정도로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황당해 보이는 음모론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지니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느 ‘대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임종을 앞둔 조지 H.W.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가 나는

음을 앞두고 자신의 ‘절친’에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굳이 물었을 리는 없을 터다. 확정적인 결론을 이끌 낼 정도로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일반인들로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황당해 보이는 음모론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지니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느 ‘대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임종을 앞둔 조지 H.W.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가 나는 /홍행기 정치부장·부국장redplane@

기고

먼 훗날 아이들은 어떤 교육 내용을 기억할까?



김광호
여수여양고 교사

이 기억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우리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지성 뿐만 아니라 덕성과 체성까지 익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체와 덕과 지를 결합 인간을 양성하는 곳이지 지식 익힘만으로 아이들을 서열화하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누군가는 수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아무게는 꼴찌라는 열등감을 느끼는 교육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교육의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현실을 직시해 보자.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 누군가에게는 훈장을 달아주고 그 누군가에게는 절망 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안내할 수 있는 지 K학자에게 다시 묻고 싶다.

이렇게 편협한 교육을 지속하다 보니 교육 시스템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몸살 기운이 학생 개인에게 전도되어 감기라는 이름으로 재생했을 뿐만 아니라 긴요하지 않은 처방전만을 아이들에게 써 주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 감기의 원인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제도와 시스템은 뒷집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행복한 장으로 거듭날 수 없을까? 불행듯 K 학자에게 상식적인 제안

을 하고 싶다.

우선 모든 아이들은 하루 최소한 두 시간 이상을 뛰어 놀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확장해야 한다. 아이들은 활발한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정신적 안정감은 물론 이요 스트레스 지수 또한 낮아진다. 설령 지식 익힘의 도달점은 낮을 지라도 체력 지수만큼은 높일 수 있는 환경이므로 학교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지난만의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매사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책과 대화의 통해 자신만의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책 속의 등장인물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글쓰기의 과정을 반드시 겸하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상화되면 삶의 전 과정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 한 달, 분기별, 학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꼭 빠뜨려서는 안 될 목록이 있다. 바로 낯선 곳으로 여행 다녀오기와 소외된 곳에서 봉사 활동하기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고 해석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지금처럼 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콘크리트 학원에 가두어 놓고 원대한 꿈을 꾸라고 한다면 이치에 맞는 말일까?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하는 그 명제는 진정한 참이런 말인가?

이젠 확립되고도 물개성화한 교육 내용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나만의 노력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먼 훗날 아이들은 어떤 교육 내용을 기억할까?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체육, 독서, 글쓰기, 여행, 봉사 등 살아 있는 내용을 담아 낼 수 있을까? 평생 평생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아이들의 목소리와 뒤섞여 사라져 간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무국	220-0551
220-0664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4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